

다시 생각해 보는 농업과 농촌

농촌은 환경을 지켜주는 보루다. 농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과 물, 공기와 같은 자연이 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그들의 정서와 사상을 키워왔다.

프롤로그

인간사회의 발전, 특히 근대화와 공업화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와 같은 인류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국내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문명(文明)의 위기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는 듯하여 안타깝기만 하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인류 문명의 한 축으로서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후에는 시장경제적 논리가 있다. 경쟁과 효율로 상징되는 물질만능적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결국은 환경을 파괴로 몰아가고 있으며, 또 환경의 과다이용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의 이용은 본래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굳이 설명

해 본다면 환경을 환경재(環境財)로 보지 않고, 시장재(市場財)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은 삶의 근원

농촌(農村)은 환경을 지켜주는 보루다. 바로 농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농촌에는 바람과 물, 공기와 같은 자연(自然)이 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그들의 정서와 사상을 키워왔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한 가운데에는 늘 농촌이 있다. 옛부터 농촌에는 농촌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지혜가 있었다. 고된 농사일을 공동으로 해내기 위한 두레가 있었고, 논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리공동체도 있었다. 이와 같이 농촌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조상들은 농촌문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 곧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자연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순환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량(食糧)을 자연 속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의 배설물에 의해 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순환관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는 균형(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지구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환경파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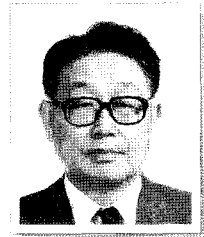
이와 같은 환경파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 회복 능력을 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되면 공해(公害)가 발생하고, 또 그 짐이 여러 경로를 거쳐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렵사리 일구어 낸 경제성장도 성장의 대부분을 공해의 보상이나 복구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파괴를 통해 성장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경쟁과 효율이라는 경제활동의 원칙도 넓게는 인간과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4그룹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매우 복잡하다. 복잡한 만큼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재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과제가 된다. 생태계 연구의 선구자인 E.P. 오덤은 생태계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생물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과 같은 비생물적(非生物的) 물질그룹이다. 둘째는 녹색식물과 같이 태양에너지를 광합성에 의해 화학적 저장에너지로 바꾸는 그룹, 그리고 셋째는 녹색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초식동물과 또 초식동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육식동물, 마지막으로 죽은 동식물이나 사체에 기생하여 분해(分解)활동을 하는 박테리아와 같은 그룹이다. 둘째가 생산자이고, 셋째와 넷째가 소비자이다.

이와 같이 생태계에서도 시장경제와 같은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시장시스템과 같은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생태계와 농업

이러한 생태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다름 아닌 태양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光合成)을 수행하는 식물들

이다. 식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용불능의 에너지 상태인 고엔트로피(高 entropy) 상태의 물질을 탄수화물과 같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 상태인 저엔트로피(低 entropy) 상태의 새로운 물질로 전환시켜 준다.

농업은 이러한 식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광업이나 공업은 자연에 대하여 폐기물이나 폐열과 같은 고엔트로피의 물질을 방출하여 오염이나 공해와 같은 자연파괴 현상을 일으킨다.

에너지 흐름 속에서 보면, 농업과 공업의 역할은 대립적이며 역행적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업적 활동이 저엔트로피의 것을 고엔트로피로 밖에 전환시킬 수 없는 데 비해, 농업과 같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고엔트로피의 것을 저엔트로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생태계의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생명과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의 문화적 효과

도시사회가 과밀화(過密化) 되면서 농촌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도시사람들의 욕구 역시 강해지고 있다. 농촌은 지금 현대 도시사회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환경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은 지금 생산계의 시대에서 환경재

의 시대로, 그리고 문화재의 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농촌마을을 활용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가 한창이다.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마을이 직간접적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 예로 전북 진안군에서는 농산촌의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아토피에코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에코센터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응하는 지역 만들기 운동의 일환이다. 이것은 농산촌 지역의 유휴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여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면서 치료 교육이나 산지형 체험농원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 그밖에도 생태마을 가꾸기 운동도 한창이다. 생태계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시사람들에게 생태체험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다.

농촌의 어메니티 효과

어메니티(amenity)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쾌적성(快適性)을 말한다. 지금 도시는 자동차나 지하철, 상점가의 소음과 같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러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일찍부터 나무를 심기도 하고 녹지(綠地)를 조성했다.

다시 생각해 보는 농업과 농촌

예를 들어 미국의 워싱턴 공항이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을 그린벨트화 했고, 또 그린벨트는 도시의 커텐과 같은 역할을 하게 했다.

녹지로 들어찬 농촌지역을 조망하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상쾌해 진다. 나무와 식물들이 풍성한 농산촌에는 피톤치드(phytoncide)와 같은 식물들이 분비하는 방향물질(芳香物質)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농산촌의 쾌적함을 이용하여 보양이나 의료시설을 만들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꾀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퇴원 후 리허빌리테이션을 위한 마을이나 정신건강을 위해 꽃을 취미로 하는 꽃마을 가꾸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농촌의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은 문화적 공간

농촌은 예술창작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에 내려오는 전통음악과 춤, 연극과 같은 무대예술이나 자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조각, 도예와 같은 예술활동은, 예술인들에게는 도시 한 가운데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유와 개방을 만끽하게 해 준다. 또 농촌은 그 자체가 야외 박물관이며 민속마을이다.

농촌에는 지역의 역사와 농민들의 삶이 녹아있다. 또 우리나라 문화의 원천으로서 농경문화에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박물관이나 민속촌, 기념관을 설립하여 보존함으로써 농경문화의 르네상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농산촌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산나물, 약초 등이 갖는 약리적(藥理的) 효능 역시 농촌이 갖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가지나 냉이는 화상이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감자나 생강 역시 타박상을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 갖은 요통치료에, 마는 변비치료에, 머위는 가래를 삭이는 데, 메밀은 생손 앓는 데, 미나리는 붓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이와 같이 농업은 새로운 문화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기초가 된다.

에필로그

자연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계,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석유문명(石油文明)으로 상징되는 자원수탈형 인간사회의 근본을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소망하는 인간회복의 경제관이며, 인간과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제관이기도 하다. 또한 욕망의 절제와 자연회복, 지구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문명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농업(農業)이 있다. Y